

연일 충돌...홍콩 시위, 격랑 속으로

경찰 고강도 대응 이어가 40명 체포·경고 사격도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 (송환법) 개정 반대 시위대와 경찰이 31일 저녁 곳곳에서 충돌한 가운데 경찰이 이날에만 40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1일 홍콩 01과 중국중앙(CC) TV는 홍콩 경찰이 "전날 저녁 시위에 참여한 40명을 불법 집회 참가, 경찰 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등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홍콩 경찰은 1일 새벽 3시15분(현지시간) 기자회견을 긴급 소집해 이 같은 사실을 발표하면서 불법을 감행한 다른 시위대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당국은 또 "2명의 경찰관이 폭도들에게 둘러싸여 생명 위협을 느낀 상황에서 각각 하늘을 향해 한발씩 경고 사격했다"고 확인했다.

그러면서 "홍콩 경찰은 (시위에 참여한) 불법 인원을 모두 체포할 능력이 있다"면서 "평화를 사랑하고 이성적인 시민들은 폭력과 거리를 두고 홍콩이 정상적인 궤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위는 시민단체 민간인권전선의 취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으로 벌어졌다. 평화적으로 진행됐던 2주 전 주말 집회와 달리 시위대는 중앙 정부 청사, 경찰청 등에 화염병과 벽돌을 던지며 거센 항의를 했다. 이에 경찰은 물대포와 최루탄을 발사하며 강경 진압에 나섰다.



8월 31일(현지시간)홍콩 민주화 시위대가 중국 국기의 오성(五星)을 나치 문양으로 그려 넣은 깃발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31일 오후 3시께부터 검정색 옷을 갖춰입은 시위대는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령부 건물 인근에서 "홍콩을 해방하라. 시대의 혁명이다"라고 외쳤고 도심 센트럴역 인근에서는 '차이나치(CHINAZI·중국+나치)'라고 쓴 대형 오성홍기(중국 국기)가 등장했다.

이날 경찰은 "많은 시위대들이 현재 중앙 정부

청사에 화염병을 투척하고 있다"며 "거듭된 경고 끝에 우리는 시위대 해산을 위해 최루탄을 발사하고 최소한의 병력을 배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홍콩 시위를 취재해 온 기자들은 SNS에 "오늘처럼 많은 병력이 배치된 것을 본 적이 없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한편 중국 관영 언론들은 특수경찰과 무장경찰 차량이 홍콩과 가까운 선전으로 집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베이징르바오는 31일 공식 웨이보 계정을 통해 "대규모 중국 공안 특수경찰과 무장경찰이 선전으로 집결하고 있다"면서 공안 차량이 줄지어 선전 방향으로 진입하는 광경이 담긴 30초 길이 영상도 게재했다.

뉴스

"파르테는 조각상 돌려주면 英에 그리스 최고 유물 전시"

그리스 미초타키스 총리 제안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가 19세기에 영국이 약탈해간 고대 그리스 유물 파르테논 신전 대리석 조각상(일명 '엘긴 마블')을 돌려주면 지금까지 한번도 해외에서 전시된 적이 없는 그리스 유물들을 영국 런던에서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았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31일(현지시간) 해외언론으로는 처음으로 영국 옵저버와 인터뷰를 갖고 "우리의 바람과 야망은 그리스 문화유산을 전세계에 보내 전시하는데 필요한 조건들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리스 독립전쟁 발발 200주년인) 2021년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리스(존슨)총리에게 제안하겠다. 우선 첫 움직임으로,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들) 일정 기간 동안 내게 대여(loan)해달라. 그러면, 그리스 밖으로 한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 매우 중요한 예술품들을 대영박물관에 전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미초타키스 총리는 "조각상의 반환에 대한 우리의 요구는 물론 예전이다. 나는 영국이 지는 전쟁을 해야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결국, 이것은 (영국이) 지는 전쟁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제에 대한 압박이 고조될 것이란 사실"이라고 말했다. 가디언은 그리스가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 환수와 관련해 영국에 '실질적 제안'을 하기는 수년만에 처음이라고 지적했다.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 또는 '엘긴 마블'은 그리스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시기인 1799년부터 1803년 사이 오스만 제국 주재 영국 대사였던 토머스 브루스 백작이 뜯어서 영국으로 가져간 조각상들을 말한다.

파르테논 신전을 띠처럼 길게 장식하고 있던 조각상들 중 그리스에 남아있는 것은 약 50m 길이 분량에 불과하고, 80m 길이 분량은 대영박물관에 있으며, 일부 조각상들은 유럽 8개 박물관에 흩어져 전시돼 있다.

그리스와 영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 환수 문제를 놓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영국 정부와 대영박물관은 여전히 반환 불가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영국 국민들의 여론은 그리스 반환 쪽을 기울고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유고브 여론조사에서 파르테논 신전 조각상을 반환하면 안된다"는 응답은 23%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반환에 찬성했다.

존슨 총리는 옥스퍼드대학 재학 시절 고전문학을 전공했으며 호머의 '일리아드'의 상당부분을 암송할 정도로 열렬한 그리스 고대 문화 애호가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존슨 총리가 미초타키스 총리의 제안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뉴스

LA공항, 中유학생 9명 입국 거부

애리조나주립대 학생들 귀국 조치 세관 "조사과정에 발견한 정보" 대학 "학교로 돌아오게 노력할 것"

미국 애리조나주립대(ASU)를 다니는 중국인 유학생 9명이 로스앤젤레스(LA) 공항에서 입국 거부돼 본국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1일 중국 중신왕은 미국 언론을 인용해 최근 가을 학기 개학을 맞아 미국 입국을 하려던 중국 유학생 9명이 지난 주 LA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해 귀국했다고 전했다.

언론은 애리조나주립대 측은 관련 기관에 입국이 거부된 원인을 문의했지만, 기관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들 학생 중 일부는 이번 학기가 마지막 학기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미국 세관국경단속국(CBP)은 "중국 학생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정보'에 따라 입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대학 측은 성명을 통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중국 학생들이 왜 본국으로 보내졌는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건은 '학문적 부정'과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 학생들의 학적은 유지돼 있고, 학교는 이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마이크로 ASU 총장은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케빈 매캘린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대행에게 서한을 보내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크로 총장은 "이들 학생은 미국 입국시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갖고 있지만 입국이 거부됐다"면서 사안을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앞서 지난 6월 중국 교육 당국은 자국 학생들에게 미국 유학 비자 발급 등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2019년 제1호 유학 경계령'을 발효한 바 있다. USA투데이는 "이번 사건은 미중(무역)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에 발생했다"면서 "유학생 사안은 양국 갈등과 연관이 없다"고 전했다.

뉴스

美·中 추가관세 발효...깊어지는 갈등

CTA "美전자업계 12조원 타격"

미국과 중국의 추가관세가 1일 오후 1시(한국시간)를 기해 발동됐다.

미국 CNBC는 미중 무역전쟁이 이날을 기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게 됐다며 소비자들 이 지갑에 타격을 입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애플 등 전자제품업체 및 월마트 등 유통업체 2천개사가 회원으로 있는 '소비자기술회(CTA)'의 브론인 플로레스 대변인은 1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만약 슈퍼마켓을 신행 TV로 보고 싶다면, 조속히 구매하는 것이 좋다"며 "(연말) 휴가시즌에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CTA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이후 전자제품 등에 대한 대중국 관세로 인해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이미 약 100억달러(약 12조원)의 타격을 입었다. 이런 상태에서 추가 관

세로 인해 피해가 더 늘어날 것을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CTA는 약 520억 달러 규모의 소비제품들이 관세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애플 경우는 추가 관세로 약 5억 달러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보고 있다.

이에 팀 록 애플 최고경영자(CEO)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 대상이 아닌 삼성 전자와 경쟁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하기도 했다.

CNBC에 따르면, 애플 등 미 업체들은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초 "추가관세 대상 제품들을 위한 제외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해당 프로세스는 시작되지 않았다고 CTA는 밝혔다.

뉴스

생활정보 스페셜

광고접수 062)510-4500

- A형 : 83×75
- B형 : 40×75

"쿨러만 가도 삽니다"

좋은 인연 만들겠습니다

최고가 매입
당일이전/즉시 현금 지급

돈 없이 중고차 구입 가능

할부상담 전액 할부 가능

차량구입 + 이전비 + 보험료 + 여운돈

(주)영서모터스
문민식 대표

H. 010-4609-8976

전남권 출장 가능
광주광역시당 표창대 수여 2019년

28년 연속 방문자·선호도 1위

광주일자리 사랑방 JOB

광주 300대 기업 채용관

평균 연봉, 매출 등
기업정보 완벽수록

요식 브랜드 전문관

프랜차이즈 정보부터
출퇴근거리 계산까지

보증보험 가입업체 관허 97호 ◆ 20층 장비 보유 ◆

포장이사를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저희 업체는 전 직원이 경력자로서 최상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고객님의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해 드립니다.

전국어디든 운반 가능 062)522-2424 전남 전 지역 061)375-8824

* 견적은 무료이며 여성영남이 직접 방문 ~ 절대 웃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보증보험 가입업체 - 분실패스시 재정경제부 소비자 피해 보상 규정에 의함 / 관허 124호

LG 익스프레스

이사 마무리시 스팀청소 서비스

- 선반 · 가구 · 싱크대 · 냉장고 청소
- 블라인드, 버티컬 탈부착 무료
- 2층~22층 사다리 보유
- 전국 체인점망 구축
- 에어컨 이설, 피아노 운반 전문

전국 어디서나 문의 080-925-1234, ☎ 572-8900

나와 가장 가까운 내손안에 JOB

인터넷 + 모바일 + 신문 동시게재

다양한 업종 채용 정보를 한눈에

세분화된 업무검색
검색서비스를 통해 1:1 채용정보 획득!

사랑방 JOB